

# 90년대 양계산업의 발전전망

“과학문명의 발달이  
산업화를 촉진시킨다.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선진사회가 겪은 어려움을  
겪지않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 나갈 것이다.”

이 철 현

농촌경제연구원

과거 영국이 산업혁명을 시작하여 오늘의 산업 사회를 이룩하는데 100년이 걸렸으나 그보다 40여년이 늦은 일본은 60년만에 영국보다 나은 위치에 설 수 있었다. 과학문명의 발달은 산업화를 촉진시키고 있어 우리 나라는 앞으로 10년이면 현재의 일본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20~30년 안에 선진국과 비슷한 산업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산업사회화와 과학문명의 가속적 발달은 통신매체의 발달과 역할증대에 힘입은 바 크다. 외국에서 개발된 신기술이나 발명은 통신매체를 통해 곧 전세계에 알려지고 이와 유사한 상품이 도처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며 먼저 개발한 나라와 늦게 참여한 나라의 시간적 차이는 불과 2~3년에 지나지 않으며, 의상디자인의 경우 일주일이면 우리 나라에서도 제품화되는 정도이다.

## 소비생활패턴 변화

통신 특히 대중전달매체 - 매스컴의 눈부신 발

달은 산업사회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의식수준도 크게 바꾸어 놓는다. 선진국의 문화수준이나 소비생활패턴을 바로 이웃집 일처럼 소상히 전달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식은 선진국에 비해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질서의식, 협동정신, 창의력 개발, 근검·절약정신과 같은 바람직한 것 보다는 이기적이고 향락적이며 퇴폐적인 생활이나 낭비적인 소비성향은 오히려 앞서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발달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양상을 크게 달리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그들의 발달과정에서 거쳐야 했던 시행착오나 구조적 조정과 의식수준의 변화에 필요했던 기간이 매우 길었던데 비하여 후진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과정을 최소화하거나 생략하며 건너뛰지 않을 수 없기 마련이다.

우리 나라 농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수요증가 작목이 크게 변하고 수요량변화도 매우 커서 생산이 이를 뒤따르지 못해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의 극심한 변동이 일반화되었으며, 소비에

있어서도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까지 포함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는 수요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일반미나 정부미나 하는 품종선호로부터 안심이나 등심이나 하는 질적 선호까지 다양한 욕구가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축산물의 질적발전 기대

농업생산에 있어서도 현대화된 이양기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허리를 구부리고 모를 심는 곳이 더 많으며, 컴퓨터가 동원된 양축농가로부터 외양간에 고삐를 묶어 키우는 농가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생산형태는 그만큼 다양한 노동을 수반하게 되고 또 그 생산물 역시 여러가지 형태로 규격화되지 못한채 시장에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비규격화는 생산에 있어 기계화를 어렵게 하고 판매에 있어 가격의 합리적인 형성을 곤란케 하거나 유통마진의 폭을 크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 양계부문 대규모화로

우리 나라의 축산물생산도 양적으로 크게 증가해 왔으며 질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1960년 89천톤이던 육류(肉類) 공급량은 1970년 165천톤으로 2배 가까이 늘었으며 같은 10년이 지난 1980년은 433천톤으로 2.6배가 늘었다. 쇠고기의 경우 1960년에서 1985년까지 9.3배가 증가하고, 돼지고기는 6배가 증가하였으며, 닭고기는 7배가 증가하여 양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생산에 있어서도 양계부문의 대규모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으며 다른 축산부문에 비해 가장 높은 생산성을 갖추고 있음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1970년대 후반까지 백만호가 넘던 양계농가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감소하여 '85년말에는 303천호 수준에 달하였다. 80년이후 양계농가의 년평균 감소율은 17.6%로써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양계농가가 크게 감소하게 된 것은 부업(副業)으로 양계를 하던 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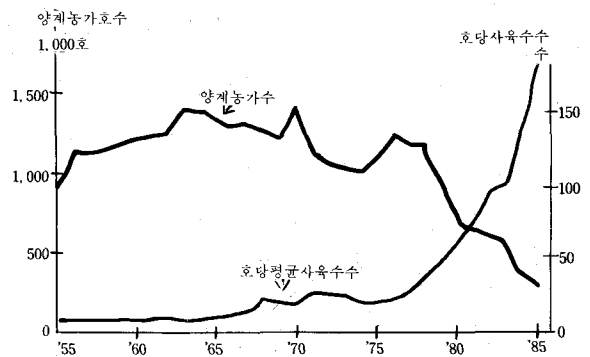


〈대규모화된 양계산업〉

가 탈락한 데 그 원인이 있는데 앞으로도 부업양계는 감소하여 거의 대부분 전업(專業) 양계농가에 의해 양계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농가규모가 확대됨으로써 대규모 양계농가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5천수 이상 규모의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75년 0.1%농가가 36.3%의 마리수를 사육하였으나 1980년에는 0.3% 농가가 54.5%의 마리수를, 그리고 1985년에는 0.9%인 2,800호가 77.4%인 4천만수를 사육하고 있다. 기업규모라 할수 있는 3만수 이상의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80년 72호가 11.8%를 차지하던 것이 1985년 197호가 29.0%인 14.8백만수를 기르고 있다.

그림. 양계농가호수와 호당평균 사육수수 변화 (1955~85)



이처럼 양계농가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한 것은 닭고기나 달걀의 가격이 높았기 때문이라 하기도 하는 양계산업에서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의 실질가격이 계속 하락함에 따라 규모확대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 결과적인 구조변화로도 볼 수 있다.

## 사료, 유전공학이 양계부분에 응용커

한편 그동안 양계산업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닭의 품종개량과 사료과학의 발달이다. 이는 사료공학, 유전공학 등의 과학적 발전이 가장 먼저 상업화에 응용되는 분야가 바로 양계부분이며, 외국의 품종개량은 곧 우리 나라로 직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발전속도는 눈부신 바 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오봉국교수님의 글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월간양계 1986년 4월호).

이와 같은 양계산업의 급속한 변화는 맨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불과 7~8년 사이에 이같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제는 선진국과의 차이도 크게 좁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우수한 닭고기〉



## 저지방식품인 닭고기 소비 계속증가

선진국 특히 미국의 경우 1인당 축산물 소비량을 보면 1980년 쇠고기 47.8Kg, 돼지고기 33.6kg, 닭고기 21.5kg이던 것이 1986년에는 49.5, 30.1, 31.8kg으로 변하여 5년동안 쇠고기는 3.6%증가에 그치고, 돼지고기는 오히려 10.4%가 감소하였으나 닭고기는 47.9%나 증가하였다. 이는 저지방 식품에 대한 선호와 편의식품(Fast food)의 광범위한 보급에 힘입은 바 크다. 닭고기는 지방이 적을 뿐 아니라 손쉽게 먹을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거나 독특한 풍미를 가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를 이용한 기업적 생산보급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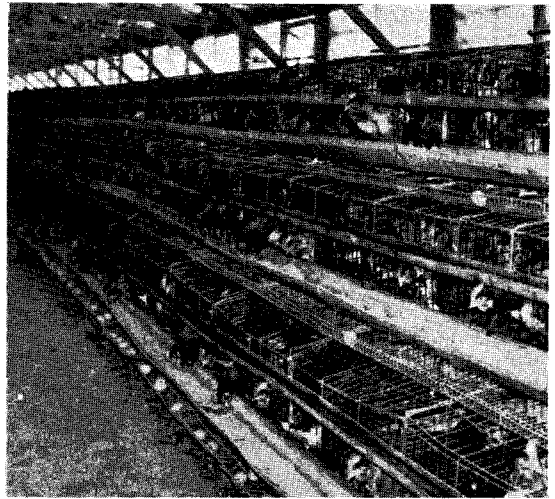
우리 나라에서의 닭고기소비는 여름철 성수기와 겨울 비수기의 구별이 아직도 분명히 나타나고 요리방법도 주로 물에 끓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식품에 대한 지출권한이 강한 주부가 닭고기를 구입하여 가족의 식탁에 올린다는 것은 매우 귀찮은 일에 속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닭고기소비는 다른 육류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나 위에서 설명한 편의식품의 일반화나 조리예편한 형태로 가공하여 판매하다면 다른 고기에 비해 매우 싸기 때문에 닭고기의 소비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도계장의 도계유통이 강화되고 치킨후라이와 같은 제품이 널리 보급되면서 닭고기의 소비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업사회가 발전하여 국민의 취업율이 높아지고 주부의 취업기회가 많아진다면 축산물 중에서 닭고기의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는 수입사료곡물의 효율적 이용증대라는 생산적 측면에서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처럼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하여 생산에 있어서 대규모화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주로 계열화를 통한 일관 생산체제가 일반화될 것이다. 이는 경영의 합리화나 위험의 분산이라는 경영적 측면에서 대두될 것이나 계열생산의 향상과 균일한 규격생산이라는 측면에서 강조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물은 특정 도계장이나 계열

## 대규모화 계속 추진

주체의 상표를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진열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육계농가의 사육규모는 연간 7만 수 생산규모로 정착되고 있으며 산란계는 백만수 이상의 대규모 농장이 수십개가 나타나 거의 자동화된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거대한 공장에서 원료를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적 공정과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동화된 양계시설이 보급되고 있으며 경영에 있어서도 컴퓨터가 등장하고 있다. 2000년대에 이르면 거의 대부분의 양계장이 자동화된 시설과 컴퓨터에 의한 조작과 경영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는 사실상 과학의 발달에 기초하고 있으나 실제 양계농가는 이와 같은 최신 과학지식에는 전혀 문외한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자동화된 양계프로그램 보급으로 구체적인 생산지식 없이도 충분히 생산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반화된다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판매분야가 될 것이다. 생산물의 생산은 자동화되었다 하더라도 생산물의 판매와 가공처리 등은 여전히 문제로 남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자동화로서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생산자의 자주성(自主性)에 관련된 문제이다. 생산자들이 그들의 생산물을 공정하게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대규모화에 의한 거래력 향상과 생산자간의 협동적 자세의 문제이다. 또한 소비자 욕구에 적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유통업체나 가공담당업체의 능력이 달려 있다. 이러한 생산과정 이외의 문제는 곧 시장주도력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발전방향을 보이게 될 것



(현대화된 양계장 전경)

으로 보인다. 즉 계열화가 일반화된다면 계열주체는 누가 될 것이며 또 어디까지 계열화하는가에 따라 생산자의 위치가 전혀 다르게 되며 유통 또는 가공업체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발전속도와 그 이익의 귀속이 달라질 것이다.

양계산업에 있어서 1990년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위의 여러가지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있어 외국에서 처럼 평등주의에 입각한 점진적 발전은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외국의 기술수준과 소비성향은 곧바로 우리나라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은 고작 1~2년에 불과하고 시장구조의 개선에도 그렇게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양계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생산자 활동이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

**위생적인 양계산물 생산에 양계인 모두가 참여합시다**